

**판소리계소설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주택사상  
홍부전을 중심으로**

**Housing Philosophy of  
Late Cho-Sun Dynasty  
Through the PANSORI Novel**  
by Han Dong Soo

**1. 서론**

지금까지 한국건축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거에 관한 연구는 인접분야-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생태학 등-의 도움으로 많은 진전을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고 그림이나 사진 혹은 도면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불과 일백년 전의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그나마도 많은 손질과 외국문물의 영향으로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후기 백성들의 정서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현재까지도 판소리로서 또는 소설로서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인 홍부전 속에 표출되고 있는 주택사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헌상에 보여지는 한국인의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주택의 모습과 주택사상을 찾아보아 한국주거연구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헌으로 찾아보는 주거연구는 김순일의 「燕行錄」을 통한 고찰<sup>1)</sup>이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고찰에서는 주로 실학사상과 관련을 지어 주택개량이라든가 환경개선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당시 주거환경의 나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환경개선적인 측면이 아닌 서민들의 의식속에 반영된 상류주택의 모습과 서민들의 주택 즉 최하층 주거의 단편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판소리계 소설의 가치**

조선후기 는 봉건적인 농업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세적 신분제도에 본질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로서 판소리는 이러한 시기에 탄생한 민중문학이다. 즉 조선후기에 민중문화가 크게 일어날 때 민중문화의 집약적 표현의 하나로서 판소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나타난 시기로는 18세기초 숙종말 영조초 쯤이 아니었나 하나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sup>2)</sup> 한편 판소리는 민중문학이기 때문에 양반문학과 민중문학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문장체 소설에 큰 충격을 주어서 판소리계 소설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그 중심사상은 양반들의 관념적 인과론을 거부하고 서민들의 경험적 갈등을 제시하여 기존사회의 불평등과 허위를 비판한

것이다. (표 1)

이러한 판소리는 설화, 또는 하나의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한마당으로 발전되고 다시 대본으로서 정착하여 소설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sup>3)</sup> 이 소설화된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은 오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누적되고 경험된 사실들이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고 일반 백성이 의식과 행동의 자각적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대의 판소리를 통해서 형성되고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깊이 밀착되어 있어 서민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현실 그 자체로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판소리는 위로는 국왕에서 아래로는 유랑천민까지를 청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반이라는 것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고 소설로까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으로서의 판소리가 문자문학으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판소리는 풍자적 성격이 강하여 언어로서 전달될 때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므로 노골적인 표현도 공연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가능했겠지만 문자로 정착된 소설에서는 그 풍자성이 다분히 윤색되고 침묵되어 고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무튼 조선후기의 판소리계 소설은 이 시대에 풍미된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서민소설의 출현, 서민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풍속화의 성행과 더불어<sup>4)</sup> 유교적인 봉건사회의 낡은 질서를 거부하는 시대정신의 발로로 성장된 서민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판소리계 소설은 당시의 한국인의 의식 특히 서민의 의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3. 홍부전의 유래와 배경**

홍부전은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자와 정확한 성립연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판소리의 발생기인 이조후기에 소설로 씌어져 정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이야기를 소설로서 엮은 것으로 이웃

판소리계 소설은 오랜 시간적 흐름속에서 누적되고 경험된 사실들이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고 일반백성이 의식과 행동의 자각적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몽고에 도거의 같은 줄거리의 「박타는 처녀」라는 설화가 전하고 일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것이 전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흥부전은 일시에 일정한 장르로 창작된 작품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여러 장르를 거쳐 형성 변모되어 오다가 끝으로 소설로서 정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 농촌의 역사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흥부전은 첫머리에 「화설경상전라량도다경에서사는사람이잇스니놀부논형이오흥부논아이러라」<sup>7)</sup> 하고 또는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삼도가 잇닿은 어름에 사는 연생원이란 양반이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sup>8)</sup> 라고 되어 있듯이 중부지방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흥부와 놀부의 상반된 인간상과 무력한 농민과 교활한 부농을 대립시켜 당시의 시대상을 해학과 풍자로 엮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일관된 경제문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기된 것이기 보다 개인의 생활과 사회체제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절실하게 체험한 평민이 그들의 일상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부딪치는 심각한 경제문제로서 제기된 것이다. 조동일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물질적인 부가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이 시대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sup>9)</sup>

(1)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의 자연경제 체제가 흔들리고 상업사회의 화폐가 이에 대처되고 있다.

(2) 사회적으로는 신분적 연속관계가 흔들리고 경제적 고용관계가 이에 대처되고 있다.

(3) 사고적으로는 관념적 유교도덕이 흔들리고 현실적 이해관계를 위주로한 사고가 이에 대처되고 있다.

#### 4. 흥부전에 나타난 주택사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배경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당시의 주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보아질 수 있는데 하나는 서민들이 꿈꾸고 바라며 동경하는 이상적인 상류주택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밑바닥 계층의 생활을 반영한 주택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흥부가 놀부의 집에서 쫓겨나와 거거할 집을 지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빗대어 하는 이상적인 집의 모습과 박을 타서 생기게 되는 집 차례에서 이다. 그것을 보면

「... 만첩산천에 들어가서 크나큰 이름드리 나무를 와르렁 통탕 지끈둥 베어내어 안방, 대청, 중채, 사랑채를 네모 번듯이 입구(口)자로 짓되 선자추녀, 굽도리, 바리받침, 내외분합, 물림퇴에 살미살창, 가로단이, 분벽주란, 고대광실을 짓는 것이 아니더라...」<sup>10)</sup>

「... 일등 목수들과 갖가지 곡식들이 나올적에 목수들은 위선 명당을 가려 터를 닦고 집을 짓는데 안방, 대청, 행랑, 곳간, 선자추녀, 말굽추녀, 내외분합, 물림퇴와 살미살창 가로단이 입구(口)자로 지어놓고 앞뒤 동산에 기화요초를 난민하게 심어 놓고 양지에는 방아걸고 음지에는 우물 파고 문전에는 버들심고 울 밖에는 원두놓고...」<sup>11)</sup>

이상의 두 내용을 살펴보면 안채, 중채(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집채) 행랑채, 사랑채 등으로 구성되는 동경의 대상인 상류주택 배치가 입구(口)자형으로 되고 있음을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류주택의 배치는 입구(口)자 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상류주택 배치의 정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같은 기록은 춘향전에서

기생 춘향이 살던 집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보여지고 있어<sup>12)</sup> 이러한 형태의 주택모습이 널리 분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원의 화려한 모습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모습을 엿보게 한다. 또한 「... 위선 명당을 가려 터를 닦고...」, 「... 앞뒤 동산에 奇花瑤草를...」에서 풍수지리 사상이 팽배되었던 당시의 한 단면이 표현되고 있어 택리지에 보이는 大抵卜居之地, 地理為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非樂土地<sup>13)</sup> 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최하층의 주택실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건넌산 언덕밑에 가서 움을 파고 온 식솔이 모여앉아 밤을 새우고 꼼꼼히 생각하여도 갈 곳은 전혀 없으니 자리를 옮기지 말고 이곳에다 몇간짜리 초가집이라도 열기설기 짓고서 시는 수 밖에는 다른 변통은 없기에 집을 지으려 하더라...」<sup>14)</sup> 닷 한지루 들게 갈아 지게에 꽃아 지고서 묵은 밭이라면 쫓아 다니며 수숫대와 뽕대(영거시과의 다년초, 산 들에서 나는데 높이 1.5m 두껍고 가지가 많음)를 낱달이 베어 짊어지고 돌아와서 비스듬한 언덕 위에 집터는 팽이로 깎아 다지고 집 한 채를 짓는 참이라 안방·대청·행랑의 몸체를 말집(추녀가 사방으로 뽕 돌아가게 지은 집)으로 열기설기 엮어서 한나절에 다 지어놓고 땀 씻으며 돌아보니... 안방을 들여다 보니 어찌나 너르던지 발을 뺀고 누워보면 발목은 벽 밖으로 나가는 지라 착고를 찬 놈이나 다름없고 방에서 멧 모르고 일어서면 모가지는 지붕 밖으로 나가는지라 회자수에 붙잡혀서 칼 쓴 놈이나 다름없고 잠결에 기지개를 켤양이면 발은 마당 밖으로 나가고 두 주먹은 두 벽으로 나가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지라...」<sup>14)</sup>

〈표 1〉 판소리계 소설의 주제

	근원적 주제	실질적 주제	표피적 주제
춘향가	남녀의 발랄한 사랑	신분계약으로 부터의 인간해방과 탐관오리 응징	烈
심청가	인과응보와 윤회사상	현세의 어두운 삶과 새 세상의 도래	孝
흥부가	권선징악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금전만능 풍토 반영	우애
토별가	약자의 위기극복	지배층의 착취와 횡포에 대한 저항	어리석음정제, 충성
변강쇠가	인간본능의 욕망	유랑민의 고난과 생활상 묘사	음란함을 정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의 주제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2, 金榮春, P. 14에서 전재함)

「... 이몸 팔자 이리 곤궁하여 말(斗) 만한 오막살이에 이 한 몸 몸담으니 지붕 마루로 별이 희고 청천한운 세우시에 우대랑이 방중이(青天寒雲細雨時 雨大郎房中房)라 문밖에서 가랑비 내리면 방안에는 굵은 비오 앞문은 살이 없고 뒷문은 외(櫻)만 남아 동지선달 눈비람이 살 쏘듯이 들어오고...」<sup>15)</sup> 라고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비록 과장된 표현이나 하층민의 주택사정의 극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데 그들의 주택의 지붕 재료가 짚 뿐만 아니라 뽕대같은 들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최소한의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안방·대청·행랑채이었음도 추측케 한다. 따라서 하층민의 주택에도 최소한 안방·대청 그리고 행랑채 정도는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류주택에서와 같이 지형을 살피서 터를 잡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어 풍수지리의 의식이 얼마만큼 뿌리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 산소글러 가난하면 어찌 큰택은 잘 살고 우리는 가난할꼬? 장손만이 잘 되라는 산소던가? ...」 하며 한탄하는 흥부의 말에도 잘 반영되어 있어 양택 뿐만 아니라 음택풍수도 팽배된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하층민의 집이 움집에서 부터 출발하고 있음도 다음 글귀에서 짐작케 한다. 「... 건넛산 언덕 밑에 가서 움집을 파고... 자리를 읊기지 말고 이곳에다 몇간짜리 초가집이라도 짓고서...」

그러면 당시의 서민들이 갖고 있던 주택에 관한 욕망은 어떠한가. 그것은 흥부의 박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살펴 보면

첫번째박 喚魂酒 開眼酒 蘇生酒 聽耳草 人參 熊胆 朱砂 등의 건강장수를 위한 각종 명약

두번째박 온갖세간과 각종 서책 문방잡기, 각종 옷감.

세번째박 황금, 백금, 오금, 옥은, 밀화 호박 등의 각종 보석

네번째박 좋은 집, 온갖곡식, 돈, 종 다섯번째박 미인첩

와 같아 주택의 소유는 네번째 즉 가장 절실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첫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약으로 오래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장 큰 것이고 다음이 공부 즉 벼슬을 얻기 위한 수단들이 절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오래 살고 벼슬만 있으면 자연히 획득되는 보석과 집, 종, 미인의 첩이 그 뒤를 이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서민들의 주택사상을 요약해 보면

(1) 풍수지리사상의 강한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2) 최소한의 주택구성은 안방·대청·행랑채를 갖추고 있었다.

(3) 또한 신분적 지배관계가 흔들리고 경제적 고용관계의 등장으로 권력의 획득과 장수무병을 바라면서 주(住)에 대한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살펴본 흥부전은 조선후기의 경제사정을 흥부가 처한 처절한 궁핍을 통하여 의·식·주의 면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통해 비추어진 주생활적인 면만을 다루어 보았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고 판소리계 소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상호공통된 점을

건축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표출한다는 이 측면에서 볼 때, 또 인간이 영위하는 사회적 행위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과 생활을 구성하던 일부였다는 공시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작품의 분석을 통한 고찰은

추출하지 못함으로 하여 생기는 오류도 적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건축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표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또 인간이 영위하는 사회적 행위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과 생활을 구성하던 일부였다는 공시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작품의 분석을 통한 고찰은 건축의 사회사적 배경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며 종래의 전통건축의 맥락을 형식적 측면에서 보아온 오류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건축의 전통과의 괴리라고 하는 면에서 그것은 판소리뿐만 아니라 가면극, 전통음악 등이 관련된 전통적 리듬감의 건축적 수용과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건축물들이 소유되어지기 위해 지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이 생활을 담기 위한 용기일 뿐만 아니라 생활을 만드는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 (주)

- 1) 金純一, 燕行錄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주택사상,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0.
- 2) 金純一, 조선후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2, 2.
- 3) 趙東一, 金興圭, Op. Cit. P. 15
- 4) 이러한 단계의 설정은 金不三과 金東旭이 주장하고 있다
- 5) 崔秀榮,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 본 근대의식의萌芽,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3, P. 29
- 6) 대백과사전6, 학원사, 1969, P. 940

- 7) 崔昌善, 흥부전, 신문판, 大正 2년, P. 1
- 8) 張德順, 흥부전, 회망출판사, 1981, P. 7
- 9) 趙東一, 흥부전의 양면성, 계명논총제5집, 1968, P. 11~14
- 10) 張德順, Op. Cit. P. 10
- 11) 張德順, Op. Cit. P. 42
- 12) 「... 춘향의 집을 살펴보니 四面八作 입구(口)지로 고주대문 안사람에 안팎 중문 줄행랑이 즐비하고...」
- 13) 李重煥, 택리지 李翼成역, 을유문화사, 1971, P. 325
- 14) 張德順, Op. Cit. P. 10

- 15) 張德順, Op. Cit. P. 10~11

## <참고문헌>

- ① 흥부전: 최창선 저작점 발행 신문판 大正 2년(한글)
- ② 흥부전 김성윤, 田中梅吉共譯, 大阪屋號店 昭和 2년(일본어)
- ③ 흥부전 장덕순편 회망출판사, 1981(한글)